

구혁채 제1차관, 국가 전략 연구 사업 관리 혁신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관리전문가(PM)들과 머리를 맞대

- 현장에서 연구과제를 직접 관리하는 연구 사업관리전문가(PM)와의 간담회 개최
- 국가 전략 연구 사업 성과 고도화를 위한 기획·관리·평가 혁신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26일(목)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하여 국가전략연구본부 연구 사업관리전문가(PM*)들과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한국 연구재단법」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사업관리전문가(PM)를 두도록 규정

이번 간담회는 연구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 국가전략연구본부 연구 사업 관리 전문가(PM) 10명과 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세계를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라는 국정과제 28번 이행을 위해 국가 전략 연구 사업의 과제 기획, 자금 집행 등 관리 현황과 예상 성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연구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구혁채 1차관은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 여부는 우리부 국가 전략 연구 사업의 성과에 좌우된다.”라며,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 관리 전문가(PM)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에, 연구과제 기획,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업 관리 방식으로 확대된 연구개발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모든 과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윤억 (044-202-4520)
		담당자	사무관	김상원 (044-202-4519)